

세계기독 간호재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Vol. 24 No. 1 통권 제 53 호

June 2021



네 팔



캄보디아



차드



캄보디아



니제르



과테말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1)

Behold,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dwell together in unity ! (Psalm 133:1)



Contents

- 03 총회장 인사말씀 - 안젤라 서
- 05 한국지부회장 인사말씀 - 성영희
- 06 연혁 및 사업
- 07 WCNF 소식
- 12 니제르 선교소식 - 서은성/김민선 선교사
- 14 차드 선교소식 - 임헌진/권홍량 선교사
- 16 캄보디아 선교소식 - 신기조 선교사
- 19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제 11 차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 박언아
- 21 간호 정보학 소개 - 최지예 교수
- 23 주님이 지켜주시는 COVID 19 학교 이야기 - 천아영
- 25 Leadership retreat 을 다녀와서 - 마리아 권
- 29 신입 평생회원 (미주 및 한국)
- 30 미주 및 해외 후원내역
- 31 미주 회원 신청서
- 32 한국지부 후원 내역
- 33 한국지부회원 신청서/ CMS 신청서
- 35 WCNF 본부 및 지부 현황





인사말씀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10)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어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구촌은 일년을 훨씬 넘게 지금까지 펜데믹이란 거센 파도의 흑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망, 공포, 슬픔 등으로 삶의 무거운 무게에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세계간호기독재단이 23 세의 장성한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말로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발 맞추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기독교의 복음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차세대의 협력이 필요하며 기성세대는 차세대를 귀하게 섬기며 그들이 함께 일 할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서 장차 그들이 교회를 잘 섬길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차세대는 선배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겸손한 배움의 자세가 되어서 서로를 보안함으로



세계기독간호재단
총회장 안젤라 서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얻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선교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29)

“등불을 든 여인”으로 추앙받은 나이팅게일이 영국의 자랑이었다면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간호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 드려야 겠습니다.

먼저, 제 11 차 WCNF 총회 행사를 은혜롭게 잘 치루어 지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큰 행사를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과 중에도 미국, 한국, 호주등에서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심으로 자리가 더욱 빛나고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번 6 월에는 WCNF 선교재단의 첫번째 사업이었던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이 중국정부의 방침에 의해 연변대학교에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마지막

졸업생 17 명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과 함께 해 오신 수많은 훌륭한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과 눈물로 심어놓으신 귀한 씨들이 세계 곳곳에서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쪽의 문을 열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며 지금이야말로 재도약기가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신실하신 간호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 아메리카 등등의 세 대륙에서 교육과 봉사를 통한 세계선교를 위해서 삶을 바쳐서 선교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선교재단이 기도와 후원을 열심히 해야 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의 하나가 됨을 압니다.

작년에 시작된 WCNF 제 3 진료소가 어려운 펜데믹 시대 속에서도 캄보디아에서 성진숙선교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잘 진행되어 지고 있고, 올해는 아프리카 차드에 WCNF 제 4 진료소를 국제본부가 힘을 합해서 설립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재단에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 어두움의 시대에 기쁜 소식을 차드에 전할 수 있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0 년 초 Covid-19 으로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미국시민을 위해서 미국정부가 보내준 마지막 비행기를 타시지 않고 차드 형제들과 삶을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권홍량, 임헌진 간호선교사님의 결정은 참으로 말씀의 삶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홍수로 집 근처 강이 범람하여 모든 생활의 근거지를 잃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니제르민족을 돌보심을 조금도

늦추지 않으셨던 김민선, 서은성선교사님의 믿음의 결단은 니제르인들에게 등불이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님들의 수고는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모두 말씀 드릴수는 없어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계십니다. 저희 선교재단이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기회가 오면 우리 후방에서 부름받은 선교재단 회원들도 단기 혹은 장기로 선교지를 방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사랑과 헌신만으로 얻을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11)





세계기독간호재단
한국지부회장
성영희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상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COVID 19 가 물러가고있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의 환자들을 간호하고 학교및 지역사회에서 대상자들을 돌보느라 애쓰고있는 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각 나라에서 선교사로 교수로 헌신하고 계신 회원들을 주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 빨리 백신공급이 원활하게되어 전국민이 접종하여 집단면역이 생기고 치료제개발도 박차를 가하여 중환자 발생이 줄어들어 일상의 생활로 회복되는 때를 고대해 봅니다.

저희 한국지부는 지난 1 월 30 일 줌 화상을 통해 총회를 개최하고 이광순 목사님의 특강으로 시작하여 사업 및 회계를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2 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회장과 임원단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2 년간 저와 함께 헌신해주신 임원단이 재임을 결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로 영입된 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저희 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2 차 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기독간호사 리더쉽 프로그램과 신규간호사 멘토링과 간호선교 세미나도 계획해봅니다. 또한 새로이 구성된 국제본부 임원단과 함께 재단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확립해나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1 년 9 월 본재단의 최초활동으로 개설된 연변과기대 간호대학이 2021 년 폐교됨에 따라 6 월 17 일 마지막 졸업식이 거행되고 20 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책자를 발간할 예정에 있어 설립시 부터 헌신해주신 이송희 이사장님과 임원님들 그리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 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으신 유숙자부회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4 월에 국제본부 총회를 저희 한국지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했으나 COVID 19 로 인해 각 나라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대면으로 모여서 그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지 못하고 3 월 27 일 줌 화상으로 국제본부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가까이 소통하며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된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WCNF 의 소명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까지 이어지도록 다음세대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엠 2:22

연혁 및 사업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은 간호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하고자 1998 년 미국 LA 에서 원로 기독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성경말씀에 순종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및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 교육, 봉사하는 것이 본회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 **1998 년** 4 월 18 일 창립, 뉴스레터 1 호 발간
- **1998 년** 연변과기대와 간호대학 설립협약서 체결
- **1999 년** 5 월 20 일 연변과기대에 건강센터 개설 및 의사, 간호사 파송
- **2000 년** 1 월 제 1 차 정기총회 미국 LA
- **2001 년** 9 월 연변과기대에 간호대학 개설및 교수파송
- **2002 년** 9 월 8 일 연변과기대 간호대학건물 준공 (연건평 2000 평, 5 층)
- **2005 년** 캄보디아 캄뵁짬에 누가 건강센터 (WCNF 제 1 진료소) 준공 및 보건교사 파송
- **2006 년** 10 월 2 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라이프 대학에 4 년제 간호대학 개설 및 교수파송
- **2008 년** 5 월 제 1 회 한국-캄보디아 간호학술대회 개최 캄보디아 라이프대 간호대학에 9 만 달러 상당의 실습 기자재 전달
- **2009 년** 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 설립준비 학술대회 간호분과주관
- **2010 년**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간호학 연구소 및 비전센터 준공
- **2011 년** 미주 지부장 평양과기대 방문
- **2012 년** 캄보디아 캄뵁뵁에 유치원 및 예배당 건축지원 북한동포 생명 살리기 운동 (고아원 지원)
- **2013 년** 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에 간호대학설립, 간호학과장파송 창립 15 주년기념 예배 및 영적각성 대부흥회 개최
- **2015 년** 1 월 한반도 국제통일간호학술대회 개최 (미국 SF)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평양과기대와 간호대학설립 협약서 체결
- **2016 년** 북한의 홍수 피해지역에 이불과 진료소 복구지원
- **2017 년** 함경북도 진료소 (WCNF 제 2 진료소) 건립 (공동연대사업)
- **2018 년** 1 월 20 주년 기념 심포지움 (미국, LA)
- **2019 년** 1 월 제 10 차 총회 미국 호놀룰루 11 월 한국지부 선교대회 개최
- **2020 년** 캄보디아 몬노롬 지역에 WCNF 제 3 진료소 건설중 52 호 회보발간
- **2021 년** 3 월 26 일 제 11 차 정기총회를 zoom 으로 개최
- **2021 년** 6 월 17 일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17 명의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다.

WCNF 회원으로 참여하실 분을 환영합니다!

*** 북미주 및 해외 회원 ***

Check 는 WCNF 앞으로 쓰고 회원 가입 신청서와 사진을 북미주 본부로 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WCNF 1946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전화] 310-324-8620

[팩스] 310-329-7718

[이메일] wcnfusa@gmail.com

Bank of America: Routing#:121000358, Account#325128528097
Hanmi Bank: Routing#12203939, Account#500298650

분납과 납부가 편리한 Zelle (자동이체)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한 국 회 원 ****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회원 가입 신청서와 사진을 한국지부 회관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우) 0665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 길 30, 910 호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전화] 02-764-1227

[팩스] 02-764-1252

[이메일] wcnfkorea@hanmail.net

[후원계좌]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우리 : 1005-902-610283

신한 : 100—031-066482

국민 : 089501-04-241452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우리 : 1005-103-276921

신한 : 100-030-594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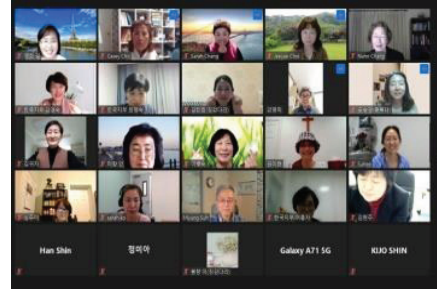
국민 : 089501-04-231842

- 분납과 납부가 편리한 CMS (자동이체) 제도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및 연락처의 변경이 있는 분들은 회보 등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CNF 소식

01 국제본부 및 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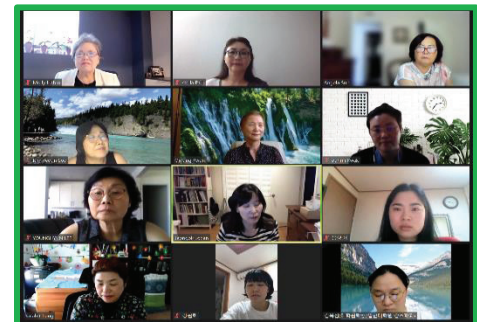
■ 제11차 국제 총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를 주제로 하여 2021. 03. 26(금), 제 11차 정기총회를 미국, 한국, 호주지부 임원 및 회원 총59명이 참석한 가운데 Zoom으로 실시하였고 각 지부 사업보고, 사업계획, 회계보고 및 신임 총회장및 임원 인준이 있었다.



[WCNF 11차 국제총회]

2021. 03. 26(금)

■ WCNF-USA와 징검다리 간호사 모임의 돈독한 관계발전을 위해서 교육부 주최로 비대면 만남을 2021. 2. 19, 2021. 4. 2, 2021. 6. 18일에 zoom으로 가졌으며 두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로 하였다. 4월2일에는 "Surviving as a nurse"란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탈북 간호사들이 처한 어려움을 듣고 서로 은혜로운 내일을 위한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6월 18일에는 'career development'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 WCNF회원들의 컴퓨터 실력향상을 위해 North Carolina대학 최지예교수의 지도로 2021. 2. 20과 2021. 2. 28 에 Word class를 가짐에 이어 Excel과 Power Point class를 마쳤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컴퓨터Class를 열기로 하였다.

1 국제본부

및 미주

■ 새로운 이사로 평생회원인 제니퍼 김, 스텔라 박, 신지은이사가 영입되어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는데 신지은 선생님은 현재 LA 카운티 정신과 Nurse Practitioner로 일하고 계신다.

■ 한기원 목사님을 선교회 자문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약력으로는 재미고신노회 총회장, Jackson 미시시피 선교학 박사, 일본현지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으며, 현재는 Evangelica 대학 선교학생 처장으로 시무하고 계신다.

■ 미주판 2021년 첫 Newsletter 편집을 위해서 김경미 이사께서 수고해 주셨고 완성된 뉴스레터는 3월달에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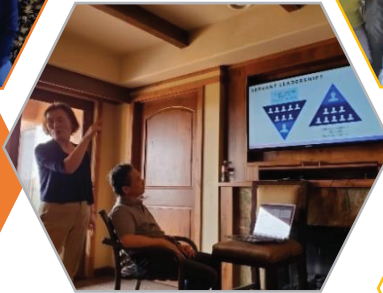
■ 2021. 6. 1 ~ 6. 4일까지 미국 회장단에서는 8명이 Sedona, Arizona 에서 Leadership Retreat을 갖고 본 재단 Mission & Vision Statement를 다시 수정하였다.



권오정 박사님과 함께 WCNF의 Mission, Vision, Goals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다



서명룡 감사님께서 communication에 관한 강의를 해 주시다.



마리아 권 부회장님과 함께 WCNF에 필요한 Leadership에 관해 토론의 시간을 갖다.

■ 또한 선교위원회에서도 2021. 6. 4 ~ 6. 5일 이틀간 9명의 회원들이 RPV에 있는 Terranea resort에서 기도회를 겸한 retreat시간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다.



■ 6월 19일 사회봉사부에서는 6.25 참전 미군용사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와 선물로 대한민국을 지켜준 수고에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02 한국지부

소식

- 회장단회의를 월 1회 화상회의로 시행하였다.
- 2020년 회무 및 회계 감사- 2021. 01.14 한국지부회관
- 2021년도 제1차 이사회- 2021. 03. 19 (ON-LINE)
- **한국지부 정기총회 - 2021.01.30 (토)** 화상회의, 회원 45명 참석
 - 이광순 목사님 특강을 듣고, 2020년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후 임원을 선출하였다.
 - 성영희님이 회장으로 재선출되었으며 강명미, 강채원감사도 재선출 되었다.
 - 임원 선임안 (신임 부회장: 김정희, 신임 이사: 서동희, 이홍자, 박언아, 정미아) 이 통과 되었다.
 - 2021년 사업계획(안)및 예산안 심의 후, 지부 운영사업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 **아프리카 차드의 임현진 / 권홍량선교사가** 한국을 방문 하게 되어 강채원감사, 이은숙 부회장과 함께 차드선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을 가졌고 (2021. 02. 24), 이후 3월5일에 차드의 보건소 건립과 운영을 위해 한명자 충북지회장의 도움으로 금관진료소를 방문하였다.



[국제본부 회장단 회의]

- 2021. 02. 03(토), 2021.03.19(금).
- 제 11차국제총회 준비

- **임원워크샵 준비 회의 -2021. 05. 15(토)**
 - 2021 년도 WCNF 한국지부 임원 워크숍을 6 월 19 일(토) 실시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회의를 함
 - 참석자: 성영희, 최정숙, 김정희, 정미아.

02 한국지부

소식



- 평양과기대 3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승률 회장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 이사장) 방문- 성영희회장, 유숙자, 이은숙 부회장이 방문하여 축하인사 및 평양과기대 간호대학설립에 대한 설명과 논의를 하였다. 2021 .04 .01(목)



- 황옥남 부회장 이 4개월 간의 캄보디아 현지 선교 컨설팅 사역을 마치고 4월5일에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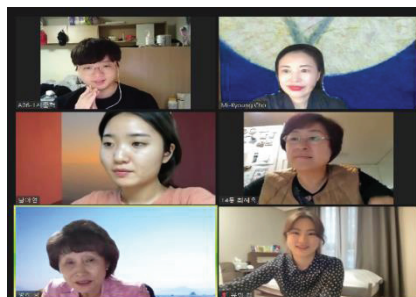
[캄보디아 사역현장]

■ 1분기 국제 연석 회의 - 2021. 05 .07(금)

- 4 월 1 일 이승률 PUST 신임총장 방문결과, 간호대학 설립추진방향 논의.
- YUST 간호대학졸업식기념 및 20 년사 발간 관련한 논의.
- PUST 간호 대 설립 등 WCNF 공동 사업 추진 방법 논의.
- 참석자; 안젤라 서, 김명자, 이영현, 마리아 권, 성영희, 유숙자, 이은숙, 황옥남, 김정희

■ 교육위원회 활동 - 2021. 05. 15(토)

- 2021-1 멘토-멘티 프로그램 실시 On-line
- 대상: 충북대 간호대학 졸업생과 학부생
- 5. 06. 서울아산병원 조미경교수(최정숙부회장)/ 김혜원, 정세림
- 5. 11. 삼성서울병원 성영희회장, 최혜옥이사, 김유민간호사, 조미경교수/ 서준혁, 남아연
- 5. 12. 서울대병원 성영희회장, 이미숙수간호사, 우진경간호사, 조미경교수/ 이현정, 이예은, 박소연, 김지현



03 호주지부

소식

- **1/4분기모임:** 3월 2일 2021년도 첫 모임 개최, 정회원 9명, 후원회원 2명 참석
홍길복목사(후원회원)님의 기도와 말씀 (히브리서 12장, 빌립보서 4장)을 읽고 사순절기간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내심을 통해서 Patient 와 함께하는 사람은 Patience가 있어야 함을 나누다

- **2021년도 사업계획중 일부진행:**

국제본부 선교비(미화 1000불), 유진벨(\$500), 바누아투 선교사 지원(\$500), Homeless 식사봉사지원(\$300)

04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소식

- **국가고시**를 4월 24-26일로 앞당겨 치르게 되어, 오경옥교수가 겨울방학도 없이 1월부터 국가고시 대비 종합평가과목을 매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으며 국가고시를 치른 후에는 사례연구 지도를 하고 있다.

- **봄학기 온라인**이 2월 말에 비대면으로 개강 했으며 3월 8일부터 대면 강의가 시작되었다.

- 그 동안 실습하고 있던 17급 학생들이 1월 초부터 코로나-19로 국가 지시에 따라 병원 실습을 중단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온라인 강의로 실습 시간을 대체 하고 있다.

- 마지막 간호대학 졸업생인 17급 학생들의 졸업식이 6월17일에 있었다





NIGER 선교소식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길에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19 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니제르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세력들에 의해 폭동과 쿠데타 시도가 있어 안전이 위협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니제르와 말리 국경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테러로 불안하기만 한 이 땅이지만 작은 꽃 하나도 귀하게 돌보시고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서 저희가 가던 길이 멈추지 않게 됩니다.

멀리 사하라 사막 마을에서 수도까지 내려와 대학 공부를 시작한 모슬렘 청년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모슬렘 공동체여서 거기서 자란 이 청년들은 김민선 선교사의 섬김이 아니었다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 보지 못했을 것 입니다. 기존의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취방을 방문하고, 가까운 수영장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서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듣지 않는것 같아도, 보지 않는것 같아도 복음의 씨앗이 이들의 마음에 자라고 있을 것 을 믿습니다.

참된 교회와 그 지체됨의 영광스러운 의미들을 나누는 교실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음의 의미가 집중적인 울림이 되어 퍼져 나갔습니다.

서은성 선교사의 현지 기독교 학교 사역이 조금씩 넓어져서 성경반 학생들이 성경을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을 보니 니제르 교회의 미래에 소망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조혼의 풍습과 일부다처제의 영향으로 많은 아픈 가정을 만나게 되는 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참된 의미와 결혼 이전에 알아야할 여성 교육을 따로 시간을 내어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늘 그렇기도 하지만 학생들과 깊이 대화하고 삶을 나누고 성격적 가치관을 가르친 시간이었습니다.

요리교실에서 만난 여학생들의 재잘거림이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부침개를 해 먹으며 “이제 우리도 이런거 집에서 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다”는 말을 들으며 함께 나누는 삶에 깊이 감사하고 친밀감을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을 깊이 배우고자

하는 G 자매가 남아 매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만큼 마음에 열정이 있는 자매인데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주 서은성 선교사와 성경을 배우며 전해진 말씀들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마단 기간을 보내고 있는 니제르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알라에게 내어 놓을 그들이 만든 의가 필요합니다. 금식이라는 의, 하루에 다섯번 기도하는 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 그렇게 자신의 공력을 계산해 알라 앞에 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복음을 듣기 위해 계속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는 모슬렘 청년 S, D, A 가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리의 거대한 속임으로 꺼져갈 것 같은 이 땅에 눈을 반짝거리며 성경공부 시간이 되면 김민선 선교사와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나타나는 이 청년들은 성경을 배우는 것 외에 아무런 보상 없이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도 이들을 막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들도 이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역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입니다.



지호가 미국으로 대학을 돌아간 뒤 " 어찌면 한 번쯤은 지호를 만나 볼 수 있겠지" 생각도 하였는데, 코로나 19 상황으로 2 년 동안 지호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인터넷 전화로 서로 연락하며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자라 혼자 세상을 헤쳐나가느라 지호에게는 거친 광야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지호가 대학교 2 학년을 마치고 올 9 월 말에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 목무를 마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나머지 학년을 마칠 예정입니다. 유나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 서은성 선교사와 함께 6 월 12 일 귀국하게 됩니다. 서은성선교사는 건강검진을 유나는 대학 진학을 위 토폴시험, 그리고 주민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군 입대할 지호와도 같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김민선 선교사는 니제르에 남아 계속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2021 년 5 월 서부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서은성/김민선 드림



CHAD 선교소식

사랑하는 선교동역자님에게,

2021 년도 벌써 낙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COVID 19 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 되면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2021 년 4 월의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1. 보건소를 열어 주실 수 있나요?

작년 하반기 만바 공동체 건설 현장에서 추장님을 만났을 때 저희 부부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매년 우기철이 되면 말라리아를 비롯해서, 장티푸스, 이질 등 수인성 질병으로 근방에 병원이나 보건소, 심지어 약국조차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지난 여름 우기철에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선교사님, 병원이나 보건소를 지어 주실 수 있나요?"라는 간곡한 부탁에 "마을 앞에 있는 버려진 건물을 사용하게 해주면 한번 해 볼게요." 하자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지요." 하였다. 이후 건물과 함께 속해 있는 엄청난 크기의 땅 (약 350 에이커) 까지 농지로 사용할수 있다는 허가까지 받았지요. 조금이나마 차드의 식량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사하라 그린 프로젝트**'는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공동체를 모델로 하여 만바 공동체로 더욱 확대되어 놀라운 은혜와 간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2.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주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차드반군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차드대통령 이드레스 데비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차드 국민들에게 차드가 2008 년 이전의 내전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 속에 엄청난 불안과 혼란을 가져왔고 대다수의 국가들과 선교사들의 잠시 출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건강 검진을 위해 출국 했다가 차드로 재입국을 하지 못하고 일정을 다시 조정중에 있습니다. 차드의 정국과 사회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차드 재입국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과 더불어 정치적인 불안까지 가중되어 최빈국인 차드 국민들의 아픔이 느껴져 더욱 안타까움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의 계속되는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3. 차드에서는...

차드의 현재 정국은 차드 전 대통령의 아들이 군정을 선포하여 국민들의 데모와 반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반군의 도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회의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바 공동체는 저희들의 입국 일정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최소한의 공사와 벼, 채소 농사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컨테이너가 4 월 22 일 차드에 도착하여 30 일이나 5 월 초에

만바 공동체로 운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만바 공동체에 농업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과 보건소, 치과의 개설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설치에 일정 부분 후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카토타, 마지야, 두기야, 고래사라, 마다, 만바, 암바스클라오 등 7 개의 센터들이 정국이 불안정하고 코비드-19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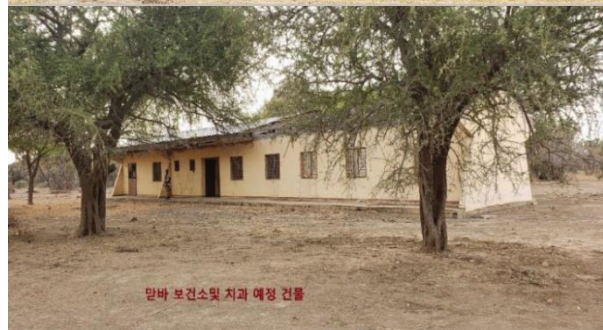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통령의 유고로 인한 차드의 불안정한 정세가 속히 안정을 되찾고, 이번 기회에 믿음을 가진 선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국민들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국가로 변화 되도록.
2.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차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모든 외국인들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3. 코비드-19 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백신의 접종과 치료제가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어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도록.
4. 만바 공동체가 잘 진행되고 함께 하는 형제들이 각자가 맡은 직분에 충실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과 공동체 의식으로 걸려지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적 기반이 튼튼해지도록.
5. 세워진 일곱 센터의 학교 학생들과 몇몇 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자립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가도록.
6. 저희 부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차드로 복귀하기 위한 안전한 입국 시기와 건강을 잘 점검하도록.

부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 년 4 월에 사랑의 빛진자된 권홍량,임헌진 드림



임헌진/권홍량 선교사님을 후원하시고 싶은 분은 WCNF 계좌로 지정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page 6 후원안내 참조)



CAMBODIA 선교소식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 보건실 신기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늘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선교 동역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12 월 16 일 프놈펜으로 돌아가 2 주간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쉼터하우스로 돌아가 강릉영동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은퇴하신 황옥남교수님과 함께 몇몇 사역지와 NGO 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현지 기관과 마을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방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캄보디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대로 지냈었는데, 지난 2 월 말경 지역감염이 시작되면서 다시 각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3, 4 학년 학생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고, 갈수록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정기진료(폐암수술후)차 4 월 4 일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각 주별로 통제가 시작되었고, 4 월 3 일부터 프놈펜은 저녁 8 시부터 새벽 5 시까지 통행 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밤 11 시 20 분이었지만 7 시 반에 공항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대학도 문을 닫았고, 대학 내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동물병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근처 시장은 열리고 있지만 각 가정은 주 2 회만 시장에 가도록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직원들은 예방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 가까이도 통행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나 할 것 없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도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급기야 어제 밤부터 4 월 28 일까지 프놈펜이 락다운 되었다는 소식을 어제 밤에 전해 들었습니다.



황교수님과 함께....



... NGO와 병원 방문

2, 3, 4 학년은 진급을 했지만 1 학년 신입생들은 코로나 19 로 인하여 대학입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월 초에 대면으로 강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비대면으로 들어가서 1 학년 학생들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2 학년 싹띠와 처위, 윤 윤, 로왈이 함께 토요일마다 성경을 읽고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스탭 사람과 체잉원과 싹띠가 프놈펜에 남아서 재택근무하고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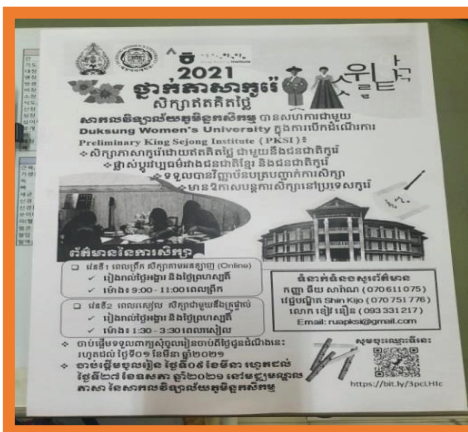


토요 성경 읽기



한국어교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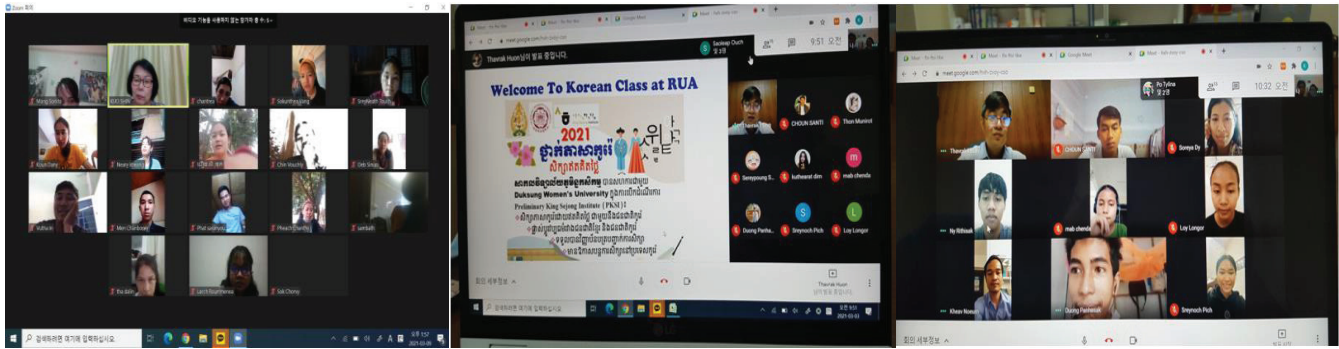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덕성여대와 세종학당을 통하여 한국어교실 사역을 넓혀 주셨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에 이어 금년에도 프놈펜 예비세종학당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계획하기는 오전반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오후반은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대학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므로 세종한국어학당 오후반도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 월 3 일 온라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3 월 9 일부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세종학당에서는 2, 3, 4 학년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재 오전반에는 17 명이 등록되어 11 명~12 명이, 오후반은 22 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전반은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진행하고, 오후반은 프놈펜왕립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로 재직중이신 분이 출강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놈펜 세종학당은 금년 1 년을 3 학기로 한 학기에 10 주간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1 년 세종학당 수강생 모집 포스터

프놈펜 예비 세종학당장은 본대학교의 부총장이신 타우레악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우레악 교수를 통하여 대학 내에서 한국어교실사역의 확장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10 개 단과대가 있는데, 8 개 단과 대는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종학당에서 공부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품가공학과와 농기계과 학생들은 하루 종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 세종학당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일주일에 3-4 시간 정도를 한국어시간으로 배려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실이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할 한국어교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장기 사역자이면 더 좋지만 단기로 섬겨줄 분들도 필요합니다. 일단 선교지를 밟아보아야 다음 단계(단기 또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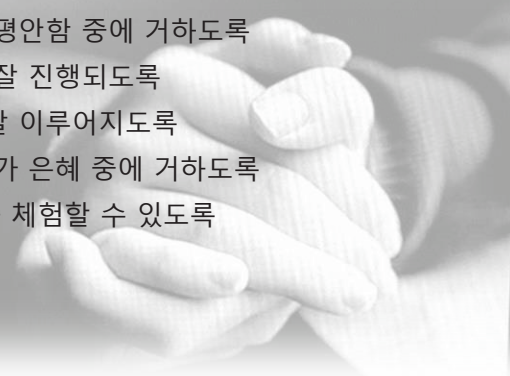
우리대학교의 한국어교실 사역은 이제 보건실 요원으로 진행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고 함께 할 동역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지도자로 키우는 일에 동참해 주실 동역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어교실을 도구로 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양육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동역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현장으로 올 수 있을 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준비된 분을 찾습니다. 늘 사랑과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며 자가격리 중에 안산에서 신기조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2. 프놈펜에 남아있는 사란, 체잉원, 산띠가 은혜로 잘 감당하도록
3. 고향에 가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도록
4. 프놈펜에 있는 임평강선교사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중에 거하도록
5.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종학당 한국어교실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6.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7. 필리핀에서 훈련사역에 임하고 있는 줄리와 안지 선교사가 은혜 중에 거하도록
8. 함께 하는 센터 가족들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신기조 선교사님을 후원하시고 싶은 분은 WCNF 계좌로 지정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page 6 후원안내 참조)

세계기독교간호재단 제11차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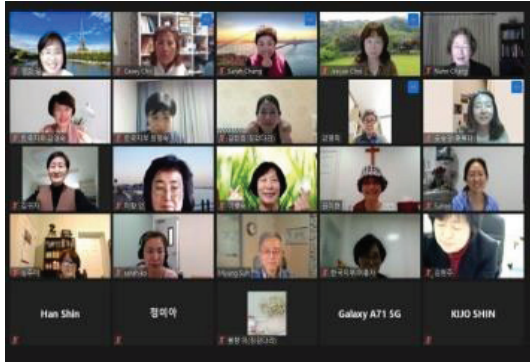
박언아
한국지부: 부천대학교수

2021년 3월 27일 미국 동·서부와 한국, 호주의 세계기독교간호재단 (WCNF: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WCNF) 회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정기총회에서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나로서는 평생 대면할 수 없을지도 모를 믿음의 동역자들을 시공간을 가로질러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적과 같이 여겨졌다. 정기총회는 2년에 한 번씩 미국, 호주, 한국지부가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미주지부 25명, 호주지부 3명, 한국지부 28명 등 많은 회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였다.

총회는 이영현 미주 재정부장님의 사회와 에스라 회원의 찬양연주를 시작으로 유숙자 한국지부 부회장의 기도 후 '선택(룻기1:1~18)'을 주제로 한기원 목사님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 이 세대에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목사님의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였다.

김명자 총회장의 사회로 2부 총회를 시작하였고 사업보고와 재정보고에 대한 동의와 재청으로 전원 이의 없음으로 진행되었다. 김명자 총회장님, 성영희 한국지부 회장님, 최부옥 호주지부 회장님과 본부 임원진에 대해 2년 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2021년부터 향후 2년간 수고해주실 안젤라서 신임 총회장님과 성영희 한국지부 회장님, 최부옥 호주지부 회장님의 비전과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WCNF가 회원의 powerhouse가 되도록 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사명인 복음전파에 힘을 합쳐나가도록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공유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다.

총회 후, 아프리카 차드의 임원진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신기조 선교사님, 황옥남 선교사님이 참석하셔서 짧게 근황을 알려주심과 함께 선교현장에 대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셨다.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모임의 목적과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선교사역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회나 회의를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있고 익숙하게 적응하고 있다. 이번 11차 정기총회도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총회였지만, 예배, 자료준비, 진행, 화면단체사진촬영 등 주최측의 준비와 수고로 2시간 동안의 총회가 잘 마무리되었다.



[WCNF 11차 국제총회]
2021. 03. 26(금)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 복음전파 현장에서 무수한 영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으며 복음전파도 계속 현재진행형이다. WCNF도 총회와 각 지부의 모임과 기도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복된 소식을 전함에 있어 계속 전진해 나가리라 생각한다. 상황의 어려움에 상관없이 유일한 소망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WCNF와 WCNF의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2021년 주님의 계획과 미션을 감당할 수 있게 독수리의 날개 침 같은 새 힘을 주시도록, 둘째,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을 믿도록, 셋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최지예
UNCW 간호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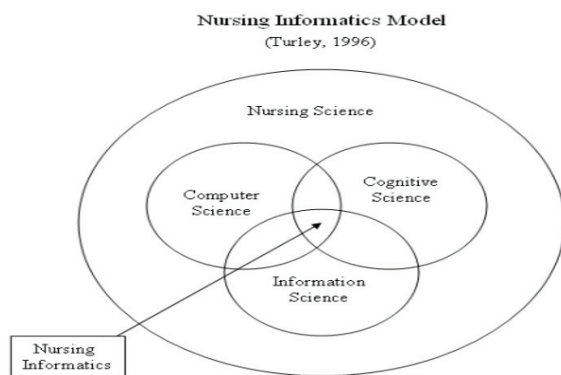
간호 정보학 (Nursing Informatics) 소개

개요

간호 정보학 (Nursing Informatics) 이란 간호 과학 (Nursing Science), 정보과학 (Information Science), 그리고 컴퓨터 과학 (Computer Science)이 접목 되어 만들어진 신종 학문입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 컴퓨터 분야에서, 대략 1950 년 대 부터 시작 되었고, 의학과 간호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시스템을 이때 부터 개발 했으나, 시기 상조 였는지, 의사와 간호사들의 큰 호응은 얻지 못했고, 일부 관심 있는 학자들만이 정보학을 끊임없이 연구 하였었습니다.

1996 년에 와서 Turley 학자는 간호 정보학을 다음 그림 (Figure) 처럼 간략하게 정리 하였고, 지금도 간호 정보학을 설명 하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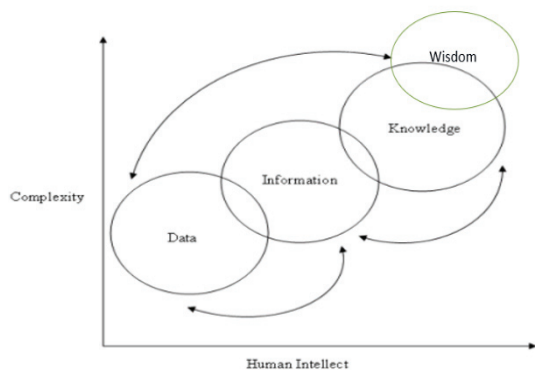
인지 과학 (Cognitive Science) 이 하나더 추가 된 것이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의해 쓰여지는 (환자나, 간호사들) 의료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간호 정보학에서는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있는가 하는 교육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2001 년에 이르러 간호학자 들은 간호 정보학에서 사용 할 수 있는 Knowledge Framework (DIKW Paradigm)을 발전 제안 하였습니다 (밑의 그림).

이 개념은 간단하나 체계적이어서, 작은 단위의 data 를 어떻게 Nursing Knowledge 로까지 발전 시킬 수 있나 하는 방법 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컴퓨터화된 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어떻게 양질의 간호를 할 수



간호용어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초창기에는 간호정보학 학자들이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을 만드는데 주력을 하다가, 이 시스템들이 똑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표준화된 간호 용어 (Standardized Nursing Terminology) 발전에 힘을 기울여 많은 유용한 간호 용어들이 생겨 났습니다. 예로, 유명한 North American Nursing Diagnosis Association International 를 들 수 있는데, 이 간호 용어는 전세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표준

간호용어가 개발 되었는데, 그 중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ICNP) 는, 잘 아시는 단체, ICN-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에서 개발 했습니다.

개발 되어 쓰여지고 있는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Support System) 들에는 직접 환자 간호에 쓰여지는 임상 정보 시스템과 행정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Electronic Health Record) 과 간호사들의 근무 일정 시스템 (Scheduling System) 이 각각의 예입니다. 이 외에도 수 많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 이미 개발되고 병원 시스템에 구축 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원격진료 시스템 (Telehealth Systems)은 임상 정보 시스템이지만 그 사용이 조금 특이 해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COVID-19 pandemic 때문에 그 유용성이 다시 크게 대두 되고 있고, 원격진료 시스템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AI-based system 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고 간호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간호 정보학과 Data Science

근래에는 간호 정보학이 data science 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여러 종류의 전자 기록 시스템, 스마트폰, 그리고 Fitbit 덕분에 엄청난 digital data 가 모여 지게 되면서 Big Data 사용의 중요성이 대두 되었던 것이 그 이유 입니다. 무엇 보다는, 과학적 data 를 바탕으로한 Data-driven nursing care 가 임상에서 가능 하도록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과학과 공학의 지속적인 발전은 자연 스럽게 Artificial Intelligence 을 바탕으로한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과 의료 기구들을 연구 개발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로 machine learning 을 이용한 예측모델 (prediction models) 을 개발 하여 간호 과학과 임상에서의 간호 현상들을 좀더 과학적으로 파악 할 수 있게 되었고, 의학기구들 중 Smart Pump와 Ba-coded Medication Administration with scanning technology는 간호사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몇 간호대학에서는 Virtual Reality technology 를 사용하여, 간호 학과 학생들에게 현실에 가까운 간호실습 교육을 시키게 까지 되었습니다. 일반 간호사들을 위한 예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Advanced Nurse Practitioners 들이 의사에 준한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한 간단 한 수술이 AI-based system 의 예가 될 수 있고, google, 미국, 영국의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만든 알고리즘 (Algorithm)은 x-ray 만 읽고 정확히 유방암 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 정확도가 일반 의사 들 보다 월등 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 정보학은 신종 학문이나, 컴퓨터와 공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이들의 기본 개념을 의료와 간호계에 응용 해야 하는 이유로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학문입니다. 짧은 지면으로 이 방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서 현실에서 거론되고 있는 hot topic 들만 설명 하였습니다. 많은 동료 간호사님 들이 이 신종 학문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호정보학을 소개 하였습니다.

참고문헌

1. Turley, J. Toward A Model for Nursing Informatic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996, 28(4), 309-313
2. Ronquillo, C., Currie, L., & Rodney, P. The Evolution of Data-Information-Knowledge-Wisdom in Nursing Informatics, Advanced in Nursing Science, 2016, 39 (1), pp. E1-E18

*최지예교수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사, Boston University 에서 Computer System Engineering 석사, Columbia University 에서 간호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현재 본 재단 교육부 위원으로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ilmington 대학에서 간호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컴퓨터실력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COVID-19 학교 이야기



천 아영

경기도 보건교사회 회장
고양시 신일초교보건교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 장 10 절)

“어서 와, 마스크 코까지 덮어야지.”

“마스크가 너의 얼굴보다 크네. 얼굴에 맞는 것을 써야지 안전해.”

“마스크 착용 안 했네. 이걸로 사용하고, 내일은 꼭 쓰고 와야 한다.”

“어, 땀을 많이 흘리네, 저기에 잠시 앉아 쉬다 들어 가자.”

초등학교 보건교사인 나의 아침 풍경이다. 아니 코로나 19 이후 매일 반복되고 있는 전쟁 같은 아침맞이 모습이다.

나는 보건교사다. 그리고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이자, 학교방역의 사령관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건교사라고 하면

‘꿀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편견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상처가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잃기도 한다.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라는 마음으로 매일 열심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와 사투를 벌이며 예방교육과 학교방역에 힘을 쓰고 있으며 안전망이 뚫리지 않도록 일선에서 학교의 단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매일 힘쓰고 있다.



보건교사는 감염병으로부터 학교와 학생을 지키기 위해 아파서도 안 되고 아프더라도 아픈 티를 내서도 안 된다. 특히 바이러스와 살고 있는 요즘 같은 때는 더 강해야 한다.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으로 2020 년 학교에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제시하는 완벽하고 안전한 학교 방역 환경을 마련하고자 모든 교직원들이 힘을 모았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지도, 유증상자 선별을 위한 조를 편성해 교문부터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교사와 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아침맞이 방역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육체적인 소모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보건선생님이 쓰러지면 안 되니 짧은 방학 동안이나마 보건선생님은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겨울방학까지 버티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하루 앞둔 어느 날 교장, 교감선생님의 당부의 말이다. 이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아침맞이가 끝나면 시원한 얼음 커피를 살짝 놓고 가는 직원들의 배려 속에서 학교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또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든 시기이지만 내가 의료인으로서, 교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라는 생각도 든다. 지난 2 월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니 참 숨가쁜 시간들이었다. 코로나 19 로 국가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였던 2 월, 학생들이 등교하는 그날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고, 코로나 19 매뉴얼 및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교내대응 매뉴얼을 변경해 전 교직원 비대면 연수를 진행했다.

코로나 발생 시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 자체 감염병 모의훈련을 2 회 실시하고, 교육청 주관 연수도 모든 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불안해 하는 학부모님들에게 학교의 방역 시스템과 환경을 안내했다. 또 코로나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온라인 자료제공, 학생나이스 자가검진, 학교에서의 유증상자 즉시 귀가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해 교육 방역으로 감염병 예방에 초점을 맞춘 1 학기 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다양한 그룹의 보건교사 SNS 대화방에서는 지난 2 월부터 코로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상호 질문을 통해 소통하고, 일반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질문을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반의 엄마 직장에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직원이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자가격리 학생 매일 건강을 파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양식이 어디 있지요?”, “해열제 먹고 학생이 나온다는데 어떡하지요?”, “우리 반의 아이가 오늘 음성으로 나왔는데 등교 수업일에 나온다고 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등 코로나 19 관련으로 우리 학교 교직원들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나는 오늘도 학교 감염병 전문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학기 코로나 19 방역 활동에 대한 준비와 긴장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서울과 수도권에 폭발적인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내 문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 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학생들의 등교수업 자체가 어렵게 됐다. 우리 학교는 이번주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교직원들에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자가 건강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복무담당자에게 전하고 선별진료소 가시기 바랍니다. 원격으로 학생 나이스 자가검진 파악해 전화

상담을 해 주시고 코로나 관련 특이사항 발생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라고 연락을 했다.

보건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귀가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니 오후 6 시 30 분. 지금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동료 보건교사들을 생각해 본다. 모두가 지치지 않게, 학교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 체제로 코로나 19 대응을 하기를 바란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로, 학교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기를 응원한다. 그리고 끝까지 힘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보건실의 문을 닫는다.



“주여 이 학교가 나의 사역지입니다. 저의 이름보다 주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고 저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무도 없는 학교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 보건실에서 두손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학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사, 이 학교 교사들에게 본이 되는 기독교사, 학부모들에게 기독교사로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경기도 보건교사회 회장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WCNF 2021 Leadership Retreat 을 다녀와서



권 마리아
미주본부 부회장

WCNF Leadership Retreat 이 힐링과 재충전의 명소인 Sedona 의 아늑한 산장에서 6 월 1 일부터 4 일까지 열렸다. 새회장단과 강사님들을 포함, 모두 8 명이 참가하였다 (권 마리아, 권오정, 김명자, 박 스텔라, 박혜숙, 서명룡, 서 안젤라, 이영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WCNF 의 변화라는 주제하에 리더십과 크리스찬 리더십의 차이, WCNF 의 strategic plan,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번 retreat 은 workshop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강사님들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인도자가 되어 참가자 전원이 WCNF 변화를 위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었다.

제 1 부: Leadership Workshop

6 월 2 일 오전 10 시부터 12 시까지 권 마리아 부회장의 인도로 리더십과 WCNF 변화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첫 질문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모두 오랫동안 리더로서 봉사 해오신 전문가 들로서 고견을 주셨다.

- 속해 있는 단체의 possibility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고, 부작용없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부정적인 느낌이 없이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며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해 내는것이다. 그리하면, 그 단체에 속한 각 개인은 행복감을 느끼며 자신감과 상태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더욱 더 큰 기여를 하게된다.
- 술선수범해야 한다.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의 은사와 기도가 중요하다.
- 목표가 뚜렷해야 하며 모두 함께 가야 한다.
-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해야 한다. 비전을 시행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섬김과 봉사로, 전문적인 지식도 겸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 Communication (소통)과 Training 은 필수요소 라고 발표하였다.

다음 질문은 Christian 리더십과 세상 리더십과는 차이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을 role model 로 해서 술선수범하는 것, Servant Leadership, 파벌 관계없이 섬긴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
- 조직이므로 질서와 절차가 필요하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다.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
- 기도와 말씀, 목상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본 생각으로 숙지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회원들을 돌보는 것이다.
- Communication 을 잘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소리를 듣지않게 한다.
- Christian 에게 더 (세상과 다른) 기대가 크다.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라! 청지기 리더십이 필요하다.

셋째 질문은 현재 WCNF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중 어느 단계에 있으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토의하였다.

- 일인 리더십에서 단체 리더십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성장기다.
- 변화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성숙과 쇠퇴의 과도기다.
- 시간상 성장기나 성숙기가 없었기에 성장과 성숙의 과도기다. 변화가 없으면 쇠퇴할수도 있다.

다음 질문은 WCNF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더 많은 일꾼들을 Recruit 하여 각 분야중심으로활동해야 한다.” (젊은) 회원 확보, 동기부여, 내일부터 다져야 한다. “변화에 민감하며 현재 회원관리도 필요하다.”
- “차세대 영입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그들의 필요를 파악한다. 회원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며 지부육성과 홍보에 더욱 힘써야할 것이다”
- 벌써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 지도부의 활동을 내부 회원들에게 홍보도 필요하다. 설득력있는, 소속감이 필요하다. 모든 회원들을 위한 모임이 필요하다.

마지막 질문인 “본인은 변화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까?”에는 모든 분들이 변화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제 1 부 워크숍 Summary:

- 비전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 (잠언 29:18).
-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잠언 16:9).
-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주님은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롬 8:28).
- 천천히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제자리에 서있는 것을 걱정하라. (John Maxwell)
- 미래의 변화에 대한 긴박감 (Sense of urgency)을 가지고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John Kotter).
- 건설적인 다툼은 필요하다.
- 내실을 다지고, 외부에 홍보하며 내부와 외부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

제 2 부: Communication Workshop



오후에 이어진 2 부 순서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서명룡 감사께서 의사소통의 중요성, 일반적인 의사소통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실수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의사소통 장애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조직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며 신뢰를 구축 하는데는 인간관계에서 의사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사소통은 팀을 하나로 만들어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며, 청중의 이해를 증진시켜 의사 결정시에 갈등을 줄여주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곳에는 참여 인력을 증가 하여, 문제 해결에 있어 혁신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것에 큰 도움을 준다.

의사소통시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진실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상대방이 말을 마치기 전에 메시지의 내용을 안다고 가정하는 것과 상대말이 끝나기 전에 끼어들어 메시지 전달을 방해하는 것, 나의 감정으로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며 지시하도록 하는 것,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 상대의 메시지에 대하여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상대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 나누는 대화의 내용 파악을 옳바로 파악하지 못하는것과 어려운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상이며, 그것은 정보 뒤에 숨은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고, 전할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의 완전한 의미를 상대방이 듣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소통에서 당사자가 한쪽의 의사소통을 이해할 수 없거나 두 사람 사이에 완전 의견이 전달되지 못할때 의사 교환의 장애가 발생한다. "침묵의 치료"로 알려진,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흔한 의사소통 장애의 한 형태인데, 그것은 보통 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불쾌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발생한다. 이때, 해결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가 대면 의사소통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얼굴 표정, 목소리의 억양 (톤), 움직임, 인사, 외모, 시선, 제스처, 자세, 볼륨, 감정 등 세부 사항 등이 영향을 미친다.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목소리 톤이 38%를, body language 는 55%를 차지하며 실제 입으로 전해지는 언어 내용은 7%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제 3 부: WCNF Strategic Plan Workshop

오후 4 시부터 7 시까지 권오정 교수의 인도로 세계 기독교 간호 선교재단 장래 5 년간의 전략계획 (strategic plan)을 수립하였다. 보통 2 일 이상 걸리는 작업을 모든 참석자들이 열심히 참가하여 3 시간만에 Mission, Vision, Goals, 그리고 Actions 들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first draft 이며 모든 회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WCNF Mission Statement:

간호교육과 의료 및 사회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로 전파

WCNF Vision Statement:

- ◆ 내실강화를 통해서 회원들과 임원들간에 소통이 활발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에 민감하며 회원증가 및 지부와 지회를 활성화한다.
- ◆ 간호선교사 개발 및 지원을 통해서 간호교육과 의료 및 사회봉사를 통한 그리스도 복음전파의 사명을 활발히 감당하는 선교단체를 지향한다.

WCNF Goals & Actions:

Action #	Action Description	Due Date	Owner(s)	Budget
Goal 1: 조직 내실 강화				
G1A1	지부 및 지회 활성화	12/31/2021	지부육성 위원장	\$
G1A2	정관 개정	12/31/2021	회장단	\$
G1A3	회원들의 소속감 증대	12/31/2021	회장단	\$
Goal 2: 차세대 영입 및 개발훈련 지원				
G2A1	차세대 담당 위원회 조직	8/31/2021	이사회	\$
G2A2	차세대 회원 (10 명) 영입 및 교육 지원	12/31/2021	차세대 위원장	\$
Goal 3: 간호 선교사 개발 및 지원				
G3A1	장/단기선교 계획 수립	7/31/2021	선교위원장	\$
G3A2	장기 (1 명) 단기 (5 명) 선교사 파송	12/31/2022	선교위원장	\$
G3A3	의료선교 및 간호단체와 협력강화	12/31/2021	총회장	\$
Goal 4: 의료 및 사회봉사 증진				
G4A1	지역 봉사단체와 협력	12/31/2021	봉사위원장	\$

Note:

- 이 strategic plan 은 final version 이 아니며 수정될 수 있다.
- Action 들은 보통 1 년씩 계획한 후 달성 (completed) 또는 재설정 (Renewed) 한다. 일부 Action 들은 다년 (multi-year)으로 설정할수도 있다.
- G1A1, G1A3, G4A1 – 다른 Action 들처럼 측정 (measured) 할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 예산 (Budget) 은 Action 들을 성취할 수있도록 충분히 설정이 되어야 하며, 저예산과 (under budget) 미예산 (no budget) 은 탁상공론이 (lip service only) 될수가 있다.
- 각 위원회 부장들은 주기적으로 (monthly or bimonthly) 성과를 보고하고, 연말에는 각 Action 들이 달성되었는지 또는 재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신입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일평생 WCNF 를 사랑하고 지원하며 선교 사업에 힘쓰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정성으로 일백만원 이상이나, 미화 일천불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회원으로써, WCNF 평생회원이 됩니다.

미주 및 해외 신입 평생회원 (2020 년 11 월 9 일-2021 년 6 월 7 일)

회원 NO	이름	소속	회원 NO	이름	소속
562	스텔라 박	Shepherd 간호대 동문	564	김 미희	Angela 총회장 지인
565	박 단비	박혜숙이사 자부	566	김 은성	서울대 간호대 동문
567	맹 옥렬	서울대 간호대 동문	568	곽 은미	Vanguard 간호대 동문



562 스텔라 박
Shepherd 간호대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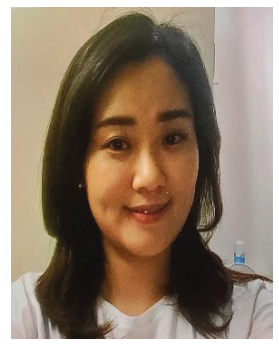
565 박 단비
박혜숙이사 자부



566 김 은성
서울대 간호대 동문



567 맹 옥렬
서울대 간호대 동문



568 곽 은미
Vanguard 간호대 동문

한국지부 신입 평생회원 (2020 년 11 월 21 일-2021 년 4 월 30 일)

회원 NO	이름	소속	회원 NO	이름	소속
601	김 인주	분당 서울대 병원	602	김 복희	서울대 간호대 동문
603	최 순덕	세대로 교회	604	유 수옥	캄보디아 라이프대 간호대학교수
605	정 수진	삼성 서울병원			

*평생회원 번호 정정합니다. 최난숙(600 →599) 조은희 (601-→600)



601 김인주
분당서울대병원



602 김복희
서울대 간호대학동문



604 유수옥
캄보디아 라이프대
간호학 교수



605 정수진
삼성서울병원

미주및 해외지부 후원금 내역

(2020 년 11 월 18 일 ~ 2021 년 6 월 07 일)

후원교회

세인트루이스한인장로교회 (\$2,000)
 열린문교회 (\$1,400) 성서장로교회 (\$600)
 남가주기쁨의교회 (\$200)

선교후원금

강정옥(\$3,500) 나민주(\$200) Ruth Frendl(\$2,000)
 최진희(\$500) 한진숙(\$300) 장영희(\$100)
 박호순(\$300) 이일순(\$200) 조순옥(\$300)
 호주지부(\$975) 부산대간호대학 동창회(\$500)

북한선교

배옥례 (\$500) 진동근(\$60)

평양과기대

이일순(\$1,000) 유명자(\$2,000)

NKNRF

박혜숙(\$10,000) 유미영(\$400)

비전회비

신지은(\$4,000)

평생회비

Stella Park(\$1,000) 박단비(\$1,000) 김은성(\$1,000)
 맹옥렬(\$1,000) 곽은미(\$1,000)
 정주순(\$900) 손명주(\$300) Terry Choi(\$220)
 남춘자(\$120) 오수희(\$240)

본부 지원

김명자(\$2,800) 이영현(\$2,100) 차영철(3,900)
 Terry Choi(\$1,200)

이사회비

김연수(\$1,400) 장사라(\$600) 최윤경(\$400)
 김명자(\$700) 이영현(\$700) Angela Suh(\$1,200)
 조인숙(\$1,200) 박혜숙(\$600) 황옥자(\$500)
 강정옥(\$500) 유정숙(\$300) 마리아권(\$600)
 이일순(\$1,200)신지은(\$200) 김혜진(\$200)
 Stella Park (\$500)

지정후원금

기도회및 이사회 식비: 조인숙(\$200) 이일순(\$100)
 Angela Suh(\$100)
 김란희 장학금: 장사라(\$1,000)
 마리아권장학금: Daniel 권(\$200) 권오정(\$2,100)
 징검다리모임후원: 강정옥(\$2,500)
 회관지붕교체후원: 김연수(\$3,000)
 북방사역: 박혜숙(\$1,400) Angela Suh(\$1,000)
 연과대졸업식후원: 박혜숙(\$600) 서승렬(\$500)
 이갑순(\$500) Angela Suh(\$300) 김명자(\$200)
 서은성선교사자녀후원: 박혜숙(\$900)
 성진숙선교사후원: 생수교회(\$2,200) 김미경(\$5,200)
 Christine Suh(\$100)
 WCNF 제 3 진료소: Joanna Lee(\$200) Terry Choi(\$90)
 Lisa Mcqueen(\$500) 최지예(\$200) 김연수(\$3,000)
 우서윤(\$300)
 임현진선교사후원: Christine Suh(\$600) 박호순(\$300)
 차드진료소후원: 장사라(\$3,000)
 네팔 방영숙선교사후원: David Suh (\$300)
 김규숙(\$1,000) 박혜숙(\$1,001)서승렬(\$1,500)
 손춘자(\$1,000) 정혜경(\$200)



세 계 기 독 간 호 재 단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310) 324-8620 e-mail: wcnfusa@gmail.com

회원 가입 신청서 (Membership Application)

회원 정보	성명	영문	생년월일	
	Name	한글	출신학교 / 학위	
	휴대폰		직장명/직위	
	이메일		출석교회/직분	
	주소			

회원 구분	☐ 일반회원 매월 \$10 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원하시는 납부 방법에 X 표를 하십시오. \$10 () \$20 () \$30 () \$40 () \$50 () 기타 \$ ()
	☐ 평생회원 (회비: \$1,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 ☐ 일시불 분납 () 회
	☐ 비전회원 (회비: \$10,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 ☐ 일시불 분납 () 회

- ☐ 선교후원금 (내용: 금액:)
*선교후원금은 선교지간호대학 및 기관 지원, 선교사후원(이름 명시) 선교지학생 장학지원,
북한간호사업재건기금, 운영지원 기타(내용명시) 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
*평양과기대에 북한 최초의 4년제 간호대학 설립을 위한 후원금입니다.

컬러 사진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 시거나 사진파일을 email 로 보내셔도 됩 니다)	• Check 은 WCNF 앞으로 쓰시고 본 신청서와 함께 재단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 Tel (310) 324-8620 e-mail: wcnfusa@gmail.com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행으로 직접 보내실 때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입금 후 전화, 문자, 이메일등으로 연락바랍니다. - Bank of America: Routing#:121000358, Account#325128528097 - Hanmi Bank: Routing#12203939, Account#500298650
--	--

- 비전회원은 본재단의 목적인 교육, 봉사, 선교에 비전을 갖고 \$10,000 이상 납부한 회원이며, 본재단의 명예이사로 추대합니다.
- 평생회원은 본재단의 신조와 목적에 찬동하며, 본재단의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코자 하는 회원으로서 \$1,000 이상을 납부한 회원입니다.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날짜:

한국지부 후원금 내역

(2020 년 11 월 21 일 ~ 2021 년 4 월 30 일)

북한간호사업 재건기금 (NKNRF)

고진숙(6 만원) 곽인자(5 만) 김소연(12 만)
엄봉순(12 만) 유환영(1 만)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기금

권지혜(18 만) 김경숙(5 만) 김복희(100 만)
박은정(12 만) 변주나(5 만) 이영미(6 만)
이인희(6 만) 전인숙(8 만) 김숙진(2 만)
세대로교회(60 만)

옥합회비

김매자(10 만), 김일란(10 만), 신연숙(24 만)

평생회비

강명희(6 만) 김현미(10 만) 김은주(40 만)
김양남(6 만) 김영아(12 만) 김인주(20 만)
박금실(12 만) 박수경(10 만) 박병준(30 만)
서영경(25 만) 유수옥(40 만) 정수진(50 만)
최순덕(40 만) 한선규(5 만) 한영옥(12 만)

비전회비

김옥인(50 만) 서동희(500 만) 정정자(10 만)

캄보디아 건강센터

오호석(1 만)

캄보디아 장학금

문은숙(15 만) 양혜리/이우일(25 만)

선교/후원

강명미(10 만) 김대희(5 만) 김경순(12 만) 권인각(5 만)
김영희(6 만) 김진자(4 만) 김현주(6 만) 김희정(12 만)
민자경(6 만) 박계숙(2 만) 반신자(5 만) 안춘지(5 만)
양영란 (25 만) 오상준(1.2 만) 오은경(5 만)
오경화(12 만) 오유미(5 만) 우진경(10 만) 서강유(5 만)
서정윤(5 만) 이두임(5 만) 이정옥(15 만)
이정희(24 만) 장말란(15 만) 전은경(18 만)
조은희(30 만) 최동희(5 만) 최윤정(4 만) 황옥남(10 만)
기독교간호사회(12 만)

지정후원금

캄보디아 (제 3 진료소): 강명미(50 만) 박형란(20 만)
유숙자(40 만) 이해란(20 만) 장말란(10 만)
조은희(100 만) 최종흥(20 만) 한명자(100 만)
이송희 이사장 후원: 고현교회(60 만)
서은성 선교사: 강명미(30 만)
이영현 미국회장: 늘푸른 침례교회 (200 만)
간호학 대학생 장학금: 박형란(20 만) 조미경(20 만)
김종양 선교사: 박형란(60 만)

월회비

김귀자(2 만) 김신혜(6 만) 이보영(12 만)

이사회비

강채원(40 만: 52 호누락) 성영희 (30 만)
유숙자(40 만) 이병숙(20 만) 정미아(40 만)
한명자(20 만) 황옥남(20 만)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연간 40 만원이며, 그외지역은 연간 20 만원임.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TEL 070-8614-1252 02-764-1227 FAX 02-764-1252

wcnfkorea@hanmail.net

(우) 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센츨리 1 오피스텔 910호

회원 가입 신청서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
	집 전화	출신학교 / 학위		
	휴대폰	직장명		
	이메일	출석교회		
	주소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이 필요 하신 분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구분	☐ 일반회원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CMS제도를 이용하여 납부가능. ☐ 1만원 ☐ 2만원 ☐ 3만원 ☐ 만원 기타 월 () 만원	
	☐ 평생회원(회비: 일백만원)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이체나 CMS제도를 이용하여 1년 내에 분납 가능 ☐ 일시불 분납 () 회	
	☐ 비전회원 (회비: 일천만원)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자동이체나 CMS제도를 이용하여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일시불 분납 () 회	

☐ 선교후원금 (내용: 금액:)

*선교후원금은 선교지간호대학 및 기관 지원, 선교사후원(이름 명시) 선교지학생 장학지원,

북한간호사업재건기금, 운영지원 기타(내용명시) 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

*평양과기대 에 북한 최초의 4년제 간호대학 설립을 위한 후원금입니다.

컬 러 사 진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 시거나 사진화일을 이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 다.)	【 입금계좌안내 】 () 우리은행 1005-902-610283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신한은행 100- 031 - 06648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국민은행 089501- 04- 241452 세계기독교간호재단한국지부 ☞ 입금은행에 체크해주시고 입금 후 연락 바랍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비전회원은 본재단의 목적인 교육, 봉사, 선교에 비전을 갖고 1,000만원이상 납부한 회원이며, 본재단의 명예이사로 추대합니다
- 평생회원은 본재단의 신조와 목적에 찬동하며, 본재단의 사업을 위해 계속 헌신코자 하는 회원으로서 100만원이상을 납부한 회원입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June 2021

33

CMS(Cash Management Service) 자동이체: 직접 은행에 가시는 불편 없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E-mail 또는 우편으로 본재단으로 보내주시면 금융결제원의 감독하에 출금은행에서 WCNF 계좌로 입금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CMS 출금이체 신청서

□ 수납기관

수납기관명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대 표 자	성영희
사업장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 길 30, 910 호	사업자등록번호	210 - 82 - 78154

□ 출금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출금계좌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앞자리)	
금융기관명		출금계좌번호	
신청인명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주소		예금주 휴대전화	
신청인 주소		신청인 휴대전화	
월 입금액	원	출금시작 년월일	20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 (해지일) 5 년까지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TNB 소프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함 ☐ 동의안함 ☐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 3 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예금주 : (인)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경우)

주)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WCNF 본부및 각지부

* 각지부는 지역별 지회 나 분야별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WCNF 재단	
이사장	이송희
이 사	최명희
이 사	강흥순

국제 본부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310) 324- 8620	
e-mail : wcnfusa@gmail.com	
총회장	안젤라 서
제1부회장	마리아 권
제2부회장	조인숙
사무총장	김명자
감사	이일순
감사	배옥례

USA 지부	
Alabama	채정자
Boston	조종희
CA, Central	권마리아
CA, North	김복상
CA, San Jose	이일순
Chicago	이복선
Florida	홍찬길
Georgia	안옥자
Hawaii	구(이)순규
Illinois	이(최)순자
Maryland	양(권)윤자
Michigan	홍(남)문숙
Missouri	이(문)광자
North Carolina	김연수
New York	주명숙
New Jersey	강(최)흥순
Ohio	이명숙

Rhode Island	이(김)영옥
Texas,Dallas	최영숙
Texas,Austin	김은자
Texas,Houston	조상수
Uni.Verginia	강정옥
Washington	김지니

호주지부	
e-mail : wcnfaustralia@gmail.com	
회장	최부옥
부회장	김현남
감사	천옥영
감사	류영숙

캐나다지부	
회장	곽나미
Toronto	송신자
Vancouver	최영자

독일지부	
회장	김연숙

뉴질랜드 지부	
회장	조영옥

한국지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30, 910호	
Tel : (02) 764-1227	
Fax: (02) 764-1252	
e-mail :wcnfkorea@hanmail.net	
고문	이죽자
고문	이은옥
고문	백승남
고문	이정희
감사	강명미
감사	강채원
회 장	성영희
부회장(선교위원장)	최정숙
부회장(교육위원장)	황옥남
부회장(PUST간호대학 설립위원장)	유숙자
부회장(재정위원장)	이은숙
부회장(NKNRF위원장)	김정희

지 회	
강원도	김은주
경기도	오진희
경상남도	이병숙
경상북도	이인혜
전라남도	이인순
전라북도	김현옥
제주도	강기선
충청남도	강현숙
충청북도	한명자
광주광역시	김계하
대구광역시	이경희
대전광역시	김현주
부산광역시	정정자
서울특별시	강윤숙
인천광역시	김지윤
보건교사	이석희
보건진료소	한명자

세계기독교간호재단이 설립한 선교지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



캄보디아 캄봉짬 누가건강센터 (WCNF 제 1 진료소)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연구소 및 비전센터



북한 광산촌 진료소 (WCNF 제 2 진료소)



캄보디아 모노롬 진료소 (WCNF 제 3 진료소)



북한 예배당과 진료소 (북한에 문이 열리는 날)



세계기독교간호재단 The Wor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통권 제 53 호 / 2021 년 6 월 발행 / 발행인-안젤라 서

<http://www.wcnf.org> E-mail: wcnfusa@gmail.com / wcnfkorea@hanmail.net

미주본부

1946 W 147th ST Gardena, CA 90249 U.S.A

Tel. (310) 324-8620 안젤라 서 총회장 CP. 949-933-1287 (국가번호 +1)

한국지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 길 30, 910 호 세계기독교간호재단 한국지부 (우)06653

Tel. (02) 764-1227, FAX. 02-764-1252 성영희 회장 CP. 010-9933-2901 (국가번호 +82)

호주지부

e-mail: wcnfaustalia@gmail.com Tel) 411-879-778 (국가번호 +61)